

室內디자인의 解體主義的 構成 傾向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Tendency of Deconstructivism in Interior Design

尹道根* Yoon Do Keun
金洪基** Kim Hong Ki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spatial composition techniques and character on the tendency of Deconstructivism in interior design. Interior space is basically surrounded by architectural surface and influenced by architectural shape. Therefore, the main point of this study is

based on the interrelationship of interior design and the trend of contemporary architectural design. This viewpoint is to comment upon current events in Korean situation some degree, but allow the new feeling to interior design and can be enlarge the concepts of spatial composition.

1. 序論

歷史的으로 建築思潮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室內디자인은 최근 독자성을 지닌 專門分野로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室內디자인에 대한 本質的 定義와 이론 정립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室內디자인의 位相은 建築設計組織의 構成員과 대등한 입장에서 독립된 專門家로서 활약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는 프로젝트의 종류와 규모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機能의 分化現象에 기인한 것으로서, 室內디자인의 개념이 裝飾이라는 단순개념에서 벗어나 室內環境을 창출하는 室內建築으로의 인식변화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실내공간구성을 담당하는 室內디자인은 建築史와 建築術을 비롯한 제반 건축이론을 숙지하여야 하며, 現代建築 디자인의 흐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本 研究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최근 건축공간에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解體主義的 傾向의 空間構成技法과 特徵을 이해하고, 나아가서 室內디자인에 적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研究은 韓國의 狀況에서 다소 試論的 성격이 있으나 室內디자인 分野에 시대감각에 뒤지지 않는 새로운 감각을 부여하고 空間構成 概念의 폭을 넓혀 줄 수 있을 것이다.

2. 現代狀況과 解體主義的 背景

가. 네오모던의 狀況

모더니즘 以後의 多元化된 建築思潮들이 빠른 주기에 의해 그 유행의 양상을 달리하게 됨에 따라 現代建築에 관한 논의는 정확한 정의가 유보된 채, 많은 혼돈된 修飾語句에 의해 언급되어 왔다. 또한 새로이 출현한 樣式은 그 이전의 樣式에 대한 의도적 평가절하를 수반하면서 기존의 규범에 부여되어 왔던 타당성은 곧 새로운 價値를 지지해주는 규범으로 대체되고 있다.

불과 10년전 찰스 쟁크스(Charles Jencks)가 포스트모더니즘과 레이트모더니즘이라는 구분하에 레이트모더니즘이 모더니즘의 末期이며, 앞으로 포스트모던이 지배할 것이라고 피력한 견해는 解體主義 建築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빠른 속도로 수정되고 있고, 하인리히 크로츠(Heinrich Klotz)와 같은 建築史家들은 解體主義的 登장을 모더니즘의 엘리트즘과 抽象을 제시도한다는 측면에서 네오모던이라는 또 다른 수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네오모던이라는 명칭이 포스트모던의 정의 이후에 등장하였다 해서 포스트모던의 반발에서 나온 것이라고 결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런던의 AA스쿨과 뉴욕의 쿠퍼유니온을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건축가들의 디자인은 포스트모던이라는 명칭이 등장한 1980년 베니스 비엔날레 보다도 훨씬 이전인 1970년대 초부터 독자적으로 러시아 構成主義를 연상시키는 力動的 幾

何學으로써 新構成主義라는 새로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치중심의 결여현상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채 과거에 대한 향수 속에서 포스트모던의 歷史主義的 觀點을 등장시켰듯이, 포스트모더니즘의 低俗性(Kitsch)과 回顧的 裝飾性에 대한 반발은 다시금 모더니즘에 대한 향수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解體主義 流行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 解體主義的 背景

解體(Deconstruction)는 오늘날의 藝術과 建築, 그리고 文學批評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갖게 하는 경향중에 하나이다. 예술가들은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해체에 관한 論爭의 哲學에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많은 建築家및 室內디자인들이 자신의 작품에 응용하고 있다.

건축에서의 해체주의는 文學批評의 해체와 같은 철학적 맥락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문학에서의 해체주의가 脫構造主義的 배경에서 나온 것인데 비해 러시아 構成主義에 그 디자인적 源流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解體的 構成主義(Deconstructivism)라는 복합적 용어로도 불려지고 있다.

그러나 文學이나 美術分野의 해체는 오히려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범주로 간주하는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建築分野에서의 해체는 건축적 특수상황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은 포스트 모더니즘 해석 자체가 文學, 美術分野와 建築分野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를들어 文學이나 美術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기존의 절대적 命題나 眞理를 의심하고 거부하는 것 자체를 그것의 범주에 포함시키지만, 건축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歷史的 단편이나 古典主義의 회고에 대해서 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解體主義는 기존의 모든 법칙을 의심하고 근본으로 해체하여 現代의 非定型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다다(Dada)와 같은 모더니즘과 맥을 같이 하며, 기존의 상황을 변형 왜곡하여 인용한다는 측면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유희의 개념과도 유사성을 지닌다. 다만 포스트 모더니스트의 對稱的이고 因習的인 건물형상이 제시하는 認知可能한 세계도 거부하며, 동시에 機械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단순하고 還元的인 機能的 형태를 거부하는 공통적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3. 解體主義 디자인의 概念

解體主義 이론의 학문적 목표는 傳統的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을 모두 역전시키고 記號와 言語, 歷史의 역할, 解釋의 임무, 批評形式 등의 기존의 개념에 의문을 제시하는 것이며, 명백히 구분되었던 범주를 역전시킬 뿐만 아니라 對立項을 가능케 하였던 개념까지도 해체하고자 한다. 이러한 論理가 기존의 形式을 타파하고 극단의 抽象을 추구하던 일부의 건축계열과 연계되어 해체주의 건축론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해체주의 건축론을 준비한 마크 위글리는 “해체주의 건축은 ‘디컨스트럭션’으로 알려져 있는 최근의 哲學方式으로부터 나온 것은

* 弘益大學校 教授, 工學博士
** 東洋工業專門大學 專任講師

아니며 그들은 해체주의 哲學理論을 적용하지 않는다”⁷⁾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전시회에 참여한 자하 하디드는 “10여년전에 해체가 시작될 무렵에는 베르나르 추미, 다니엘 리베스킨트, 코프 힘멜브라우, 피터 아이젠만, 프랑크 게리, 램 쿨하스 등 전시회에 초대된 모든 건축가들이 해체와는 관련이 없었다”고 말하면서, 그녀 자신도 데리다의 책을 전혀 읽은 바 없다고 밝히고 있다.⁸⁾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데리다에 의한 해체주의 철학이 해체주의 건축의 胎動에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기존의 形式을 부정하는 認識構造가 상호 밀접한 연계성을 지님으로 해서 해체주의 건축이라는 용어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한 상호 연계성은 해체주의 철학의 주요 논리인 「相互 텍스트性」, 「差延」, 「不確實性의 原理」등이 어떻게 건축에 있어 形象의 言語로 전환되고 있는가를 살펴 봄으로서 구체화시킬 수 있다.

가) 意味의 不確定性(Intermining Meaning) : 해체주의 이론은 意味와 記號의 불확실성에서 출발하며 記號의 再現 可能性을 거부한다. 기존의 텍스트에 의존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텍스트를 再編成하기 위해 건축의 경우 극단적인 抽象性을 추구하므로써, 記號와 記表간의 의미소멸을 통한 감상자의 보편적 경험소실을 강조한다.

나) 相互텍스트性 (Intertextuality) : 데리다는 텍스트의 자율성을 거부하며 言述行爲의 형태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중첩된다고 본다. 이러한 견해에 따라 해체주의건축은 자체적 자율성 보다는 文學, 哲學, 繪畫, 音樂 등과의 상호텍스트성을 주장하게 된다. 즉 해체주의는 건축이라는 대상을 하나의 텍스트로 전제하고 그 텍스트를 해체하는 가운데 다른 영역의 텍스트들과의 상호 인용을 통해 그 경계를 허문다. 이에 따라 形態와 機能, 空間과 行爲 등이 갖는 구분의 傳統의 명료성은 概念化되고 분열되어, 조화보다는 충돌로 전이되도록 유도된다.

(사례 : 피터 아이젠만의 코랄계획, 1988.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챔버 워크, 1983)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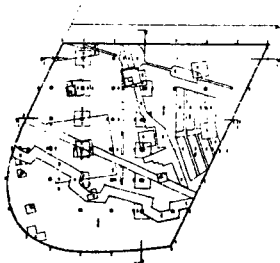


그림1) 피터 아이젠만, 코랄(Choral), 1988, 건축, 철학, 음악, 무용의 상호텍스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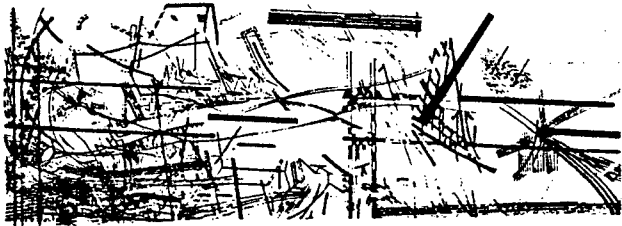


그림2) 다니엘 리베스킨트, 챔버 워크(Chamber Work), 1983, 건축과 음악의 상호텍스트성

다) 差延(Differance) : 差延은 차별이 되는 동시에 시간적으로 지연이 되는 이중적 개념에 의해 어떤 意味나 眞理도 그것이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과 완전 부합될 수 없음을 지시하는 데리다가 장안한 新造語이다. 차이들의 유희는 하나의 단순한 요소만을 참조하는 것을 떠나 하나의 요소가 다른 요소와의 관계를 통해 비로소 의미를 갖게되므로 이와같은 意味를 표현하기 위해 해체주의 디자인에서는 異質, 斷絶, 不一致, 移動, 間隙, 分離, 轉位, 痕迹 등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라) 프로그램(Program) : 해체주의는 정보의 확정적 해석을 거부한다.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존의 건축 프로그램의 대부분

은 實用性을 目錄으로하여 機能主義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나 해체주의 건축은 건축공간에 있는 사건과 움직임은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기능의 결정을 유보시키는 가운데 행위들의 우연적 만남과 조합을 강조한다. 따라서 사건은 우연발생적인 것으로서 프로그램에서 특별한 위치를 갖는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慣習의 思考에 의해 정돈된 기존의 순수하고 정제된 공간을 침범한다.

이같은 개념을 통해 기존건축의 논리적 틀로 작용해 왔던 幾何學, 軸, 秩序, 機能 등의 용어는 構造規則의 파괴를 통한 무질서, 形態의 왜곡을 통한 의미고리의 붕괴, 無目的 空間에 의한 主體의 소멸 등으로 변용되어 극단의 抽象性을 낳고 있다. 그러나 解體主義가 추구하는 추상디자인은 모더니즘의 추상과는 노선을 달리하고 있다. 즉 近代디자인의 絶對主義와 데스틸 디자인에는 일정한 構成法則이 있으며 각각 선호하는 幾何學的 범주가 존재하나 해체주의에는 일정한 범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OMA를 중심으로 하는 新構成主義의 일부계열은 여전히 1920년대의 絶對主義의 幾何學을 선호하며 그대로 인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네오 모더니스트는 모더니스트들이 제외시켰던 非定型의 추상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체주의가 추구하는 추상디자인은 모더니즘의 추상디자인과 두가지 측면에서 다른 결과를 지닌다. 첫째는 모더니즘의 지배적 원리에 의해 억제되어 오던 非定型의 幾何學에 가치를 둠으로써 추상디자인 역시 定型과 非定型의 相互作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가능케 해주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構造物들이 수직이 아닌 사선방향으로 세워짐으로서 重力의 概念에 대한 기존 인식을 타파하고 脫重力의 표현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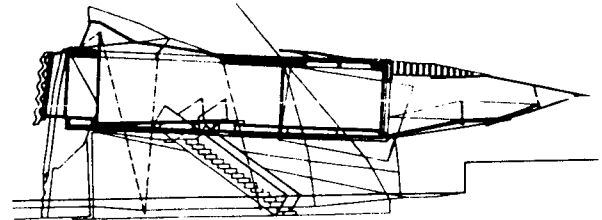


그림3) 코프 힘멜브라우, 開放住宅, 1983, 非定型의 抽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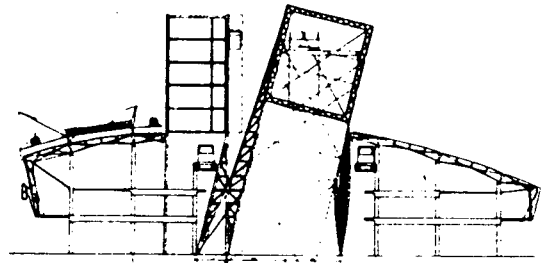


그림4) 베르나르 추미, 간사이 國際空港, 1989, 脫重力의 構成

4. 解體主義의 室內空間디자인의 構成的 特徵

1989년 뉴욕의 近代미술관에서 열렸던 「解體主義 建築展」의 큐레이터였던 마크 위글리는 SITE나 히로미 후지(Hiromi Fujii)의 건축은 해체주의 디자인이 아니라고 論評하면서 이들의 작품에 나타나는 外部

- 1) 뉴욕타임즈의 건축담당기사를 쓰는 Joseph Giovannini가 「Deconstructivist」라는 책을 발간하고, 1989년에 MOMA에서 「해체주의 건축전」이 개최되므로써 공식적인 용어로 부각되었다.
- 2) Philip Johnson & Mark Wigley, 'Deconstructivist Architecture', 김능현, 이일형 공역, 해체주의 건축, 도서출판 전일, 1991, P. 5
- 3) G. Broadbent, 'Deconstruction—a Student Guide' Academy Edition, 1991, p. 88
- 4) 라빌레프 부지에 계획된 'Choral'은 플라톤의 합창과 무용적, 음악적 차원을 언급하며 아이젠만 자신의 철학서 'Timeaus'에 대한 해석으로 나타나었고, 리베스킨트의 챔버 워크에서는 음악적 영감을 건축도면에 재생시켜 코드의 개념이 도입되므로써 건축과 타분야가 상호텍스트성을 갖게 된다.

로 부터의 형태적 교란은 형태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손상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해체주의 건축은 内部로 부터 형상을 교란시키는 것이며 이것은 건축의 內的 構造와 관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해체주의를 形態構成的인 측면에서만 이해하려는 일반적인 입장은 잘못된 것으로서 해체적 구성의 직접적 영향이 궁극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空間構造라 할 수 있다.

內的 空間構造는 일반적으로 기능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마련으로,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고 주장한 모더니즘의 기능성에 입각한 室內空間은 대부분 유클리드 幾何學에 입각한 순수 구성을 취하였다. 內的 構造의 순수성은 곧 바로 기능적 효율성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室內空間에 반영된 해체주의적 경향의 선례는 모더니즘 시기인 1920년 대로 거슬러 올라가, 絶對主義에 기초하여 機械의 이미지를 예술창조의 대상으로 삼은 構成主義에서 이미 발견되고 있다. 타들린의 「제 3 인터내셔널 기념탑」이나 나움 가보의 「라디오 방송국 설계안」 등, 당시의 기술예언적인 조형적 시도들은 거의 대부분 계획안으로 끝났으나 화려하게 실현된 것은 무대디자인을 통해서였다. 構成主義者들이 추구하는 室內空間디자인의 概念은 바로 이 무대디자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파악된다. 특히 브세볼로드 마이어홀트(Vsevolod Meyerhold)의 연극들에는 傳統的인 무대규약이 사라지며, 알렉산더 베스닌이 설계한 무대디자인(1921-22)에서는 회화적 풍경에 입각한 커튼이나 自然主義의 小品들은 자취를 감추고 오직 계단, 입면체 등에 의한 幾何學的 構成物로 대체되었다. 여기에 등장하는 경사진 벽체와 천정, 왜곡된 계단, 래티스재에 의한 架設의 이미지 등은 오늘날 해체주의 디자이너들이 추구하는 디자인 원리와 거의 흡사함을 볼 수 있다. 또한 메르니코프(Melnikov)가 설계한 1925년에 파리에서 열렸던 장식미술박람회 소련관의 室內構成에서 사선 조합에 의한 解體的 構成力이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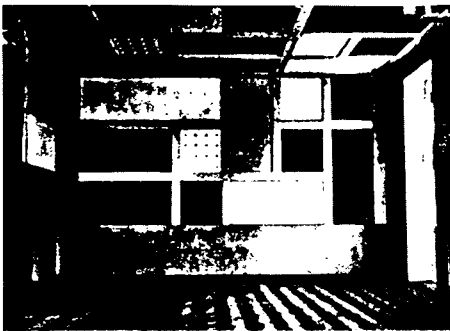


사진1) 반 뒤스브르크, 오베르 카페의 실내(1926), 데 스틸의 純粹 幾何學에 의한 構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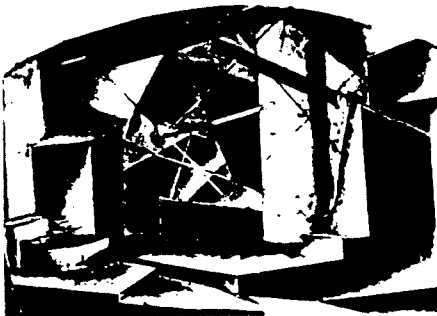


사진2) 알렉산더 베스닌, 무대디자인(1921-1922), 絶對主義의 破壞的 幾何學에 의한 構成

이러한 선례들이 취하고 있는 구성적 경향과 위에서 살펴본 해체주의 건축디자인 이론을 토대로 室內디자인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경향을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의 대상으로 선별된 작품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商業施設, 住居, 公共施設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있다. 商業施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室內디자인 분야에 국한하여 사례를 택했기 때문이며, 그중 쇼룸 성격의 기능이 다수인 것은 室內空間의 구성적 제한을 타기능에 비해 비교적 덜받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분석대상의 작품에는 일부 計劃案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실현된 작품은 80年代 末 이후에 계획된 작품들로 나타나 있으며, 시기적

으로 볼 때 베르나르 추미에 의한 라빌레프 공원의 80年代 中반 완공과 자하 하디드의 홍콩 피크 현상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분석작품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상의 특성을 표출하고 있다.

1) 圖上的 表現으로서 중첩과 非定形性

해체주의 디자이너들이 室內空間을 전개하는 개념속에는 작가 나름대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統一 대신 解體, 統合 대신 分離, 抽象 대신 概念化, 새로운 안락함을 위한 허구적 공간등의 논리가 내재하고 있으며, 定型的으로 분할된 傳統的인 空間類型에서 벗어나 破壞的 幾何學的의 抽象化된 공간을 전개시키고 있음 볼 수 있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된 표현방식은 線과 面들의 중첩에 의한 軸의 회전이나 치환으로 강한 시각적 긴장감을 부여한다.

즉 近代建築이 추구해 온 직교좌표에 의한 벽체나 기둥의 질서로부터 이탈해 있으며, 동시에 中心性이 추구된 古典建築의 傳統的인 空間構成法에서 벗어나 脫中心的인 공간구성을 취함으로써 室內空間은 긴장과 압축의 構成的 리듬을 낳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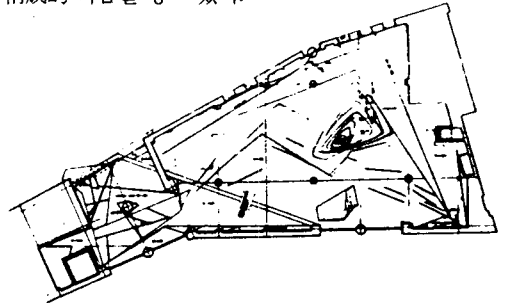


그림5) 자하 하디드, 문순 레스토랑 室內計劃, 1990, 日本 福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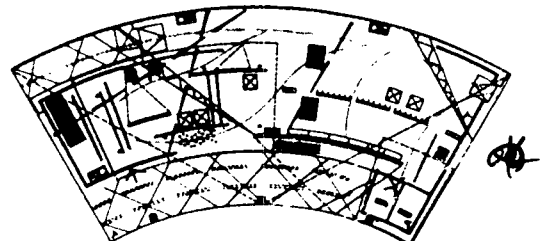


그림6) OMA,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改造計劃, 1986

이같은 의도의 배후에는 해체주의의 基本概念인 慣習을 제거하고 기존의 視覺的 日常性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강한 의지가 자리잡고 있다. 몇몇 室內디자인에 대한 작가의 설명 속에서도 그러한 측면은 여실히 나타나 있다. 밀라노 부딕(조명쇼룸)을 설계한 시미즈 후미오는 "우리들은 건축으로부터 오브제, 가구, 악세사리, 의복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이미지를 탐구하고 새로운 모델의 축진을 시도한다. 여러가지 抽象化된 幾何學的의 형태와 오소독스한 材料들에 이해 통합된 콘트라스트를 연출한다. 전시데스크, 가구들의 소품들은 抽象的이고 단순한 요소들로 취급하고 그 자체에 귀속되어있는 日常性을 탈각시킴으로서 전체적인 室內空間의 볼륨감을 강조하고 室內디자인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概念은 해체주의 디자이너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있는 자세로서 다음과 같은 처리방식으로 나타나있다.

1. 家具 配置와 上部의 構成材, 그리고 마감패턴이 형성하는 平面上의 抽象的構成力(Composition)의 극단적 강조.
2. 力動的 空間構成을 위한 천정구조 및 室內 파티션의 불규칙한 면처리.
3. 디스플레이 스테이지 및 室內家具의 非定型 構成에 의한 오브제 처리.
4. 材料 및 色彩의 혼용에 의한 바닥 및 벽체 마감패턴의 抽象的 조합.
5. 스틸파이프, 와이어 등에 의한 線形 要素의 강조 및 편칭메탈등의

금속가공재에 의한 架設의 이미지의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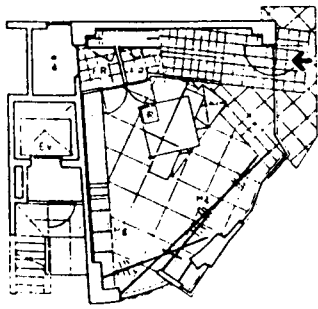


그림7) 히데오 야스이 (Hideo Yasui),
패션샵, 1989, 마감패턴의 중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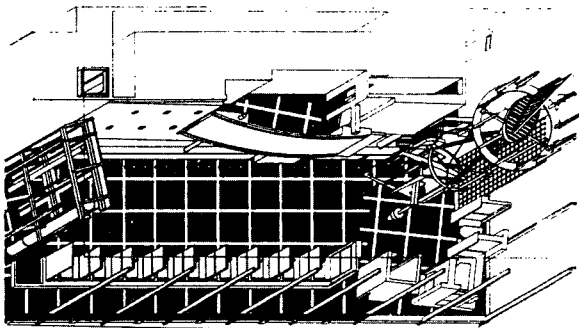


그림8) 모포시스, 산타모니카 레스토랑, 1986, 마감패턴의 중첩

2) 하이테크의 構成의 適用

해체주의적 구성을 취하고 있는 대부분의 室內計劃은 하이테크적 構成力이 절대적으로 밀받침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事例에 있어서 材料는 抽象的 構成과 表現의 새로운 요구를 충족시키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공간의 성격과 질을 좌우하는 積極적 役割을 담당하고 있다.

즉 非定型的 抽象에 입각한 공간을 전개시키기 위해서는 施工技術에 이르기까지 완벽성을 요구하는 하이테크적 結合력이 요구되며, 構成材는 스틸파이프, 편칭메탈등에 의한 架設의 이미지, 차갑고 中性的의 이미지의 금속패널, 반사유리와 거울등을 線形要素 혹은 곡률반경이 완만한 절단된 원호들의 混成的 表現으로 結合시키고 있다. 그러나 해체주의의 하이테크적 측면은 오늘날의 일반적인 하이테크 건축과는 다른 각도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하이테크가 레이너 번햄 (Reyner Banham)이 예견했듯이 未來派와 構成主義에 의해 발전된 것이라 할지라도 리차드 로저스 (Richard Rogers)나 노만 포스터 (Norman Foster)로 대표되는 최초의 하이테크 건축이 重力에 따르는 靜力學的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構築의 表現이라는 점과 비교해 볼 때, 機械美學에 解說的인 虛構를 강조하며 脫重力의 구성을 취하고 있는 해체주의의 하이테크적 구성은 근본적으로 디자인 의도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3) 자하 하디드, 문슨 레스토랑, 1986,
室內構成材의 非定型的 構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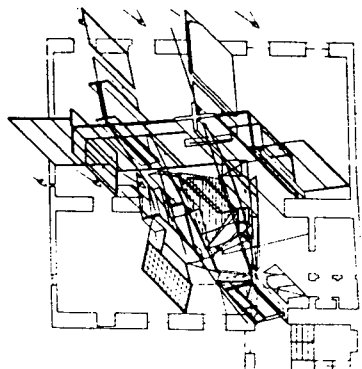


그림8) 코프 힘멜블라우, ISO 행정부, 1986,
室內構成材의 非定型的 構成

5. 結論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해체주의 디자인의 등장은 裝飾的이고 修辭的인 포스트모던 室內空間에 대한 저항으로서, 직교좌표에 의한 모더니즘의 지나친 엄격성에 대항한 空間概念의 解體의 現象이라 할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現代社會의 모든 文化的 狀況이 가치체계의 인식기준을 빠른 주기로 수정해가고 있듯이 해체주의의 抽象的 실험은 데리다의 철학적 뒷받침 등으로 인해 짧은 시간내에 보편적 流行 現象으로 자리를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1980년대 初 실현 가능성을 보인 해체주의적 디자인은 공원과 같은 대규모 施設物 혹은 메트로폴리스 내의 대규모 건축계획에 주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졌으나 최근들어서는 小規模 住宅이나 商業空間의 室內디자인에 확산되어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다. 室內空間의 構成技法는 圖上學的인 表現효과를 바탕으로 面의 해체와 분절 또는 面의 轉移에 따른 的의외성의 추구, 교차하는 線에 의한 軸의 전환 및 중첩, 이질적 요소의 대립적 結合으로 나타나 있으며 室內家具 및 파티션材, 마감패턴등이 이러한 구성을 가능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와같은 흐름을 종합해 보면 해체주의적 디자인은 앞으로 室內空間에 그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리라는 전망을 갖게 한다. 그것은 건축적 형태의 적용이 都市의 스케일, 垜地의 확보, 關聯 法規 및 構造的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1차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데 비해, 室內디자인에서는 室內家具를 포함한 모든 構成材와 마감재가 해체적 디자인 概念을 具體化시키는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조건이 많은 외부보다 그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부분 抽象的인 프로그램을 조합하는 構成材料와 施工技術이 수반된 하이테크놀로지가 전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構成的 可能性이 기술적으로 뒷받침될 때야 국내에서도 해체주의 디자인의 효용성은 보다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參考文獻)

- 1) Friedmann, Anold 外, 「室內디자인」 (Interior Design - An Introduction to Architecturals), 尹道根, 劉熙俊 共譯, 형제사, 1979.
- 2) David B Van Domnelen, 「室內디자인과 裝飾」 (Design and Decorating Interiors), 尹道根, 劉熙俊 共譯, 세진사, 1988.
- 3) 尹道根, 「解體主義 建築의 諸傾向」 建築家, 9106.
- 4) 尹道根 金元鉀, 「現代建築의 抽象과 虛構의 觀點에서 본 新構成主義의 傾向에 關한 研究」, 弘益大學校 論文集, 自然科學篇 第21輯, 1990.
- 5) 徐允珠, 「解體主義 建築의 哲學的 受容과 體系 構成에 關한 研究」, 弘益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1.
- 6) Philip Johnson and Mark Wigley, 「Deconstructivist Architecture」 New York, Little Brown Company, 1988.
- 7) Cooke Catherin, 「Deconstruction」 London, Academy Editions, 1989. 8) G. Broadbent, 「Deconstruction- a Student Guide」 London, Academy Edition, 1991

- 5) Philip Johnson and Mark Wigley, 「Deconstructivist Architecture」 The Museum of Modern Art, Exhibition Catalogue, 1988, pp. 16, 17
- 6) Kahn Magomedov, Alexander Vesnin & Russin Constructivism, Lund Humpries London, 1986, p. 53.
- 7) Eugune Lunn, 「Marxism and Modernism : A Historical study of Brecht, Benjamin and Adorno」, 김병 譯, 文學과 知性社, 1986, p.67